



# 일도2동의 꿈

- 발행처 :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발행인 : 김두경 ■ 편집인 : 임일순
- 발행일 : 2019년 12월 2일
- 편집디자인 : 고려인쇄
- (우) 632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28(일도2동)
- 전화 : (064)728-1529 ■ 팩스 : (064)723-0823



김 두 경  
일도2동주민자치위원장

## 묵빈대처(默賓對處)

연 초의 계획과 목적인 바를 다 이루지 못함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자중(自重)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회한(悔恨)일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아픔이 올하는 특이나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도2동에 오십년이나 살았으니 동네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덜컥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으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들과 부대끼고 업무에 치이면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 자생단체들의 행사와 일도2동고마로마 문화 축제에 참여하면서 많은 지역 동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알게 된 것은 하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과 역사문화 탐방 및 선진지 견학·동굴체험,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1박2일의 합동 워크숍, 지역 어르신·다문화가정·어린이들과 함께 한 환경체험이나, 주민자치 정기회의에서 여러 자치위원님들과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언쟁을 벌이면서 일도2동을 위해 고민했던 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동료 자치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1~22일 제주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세종시와 공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육지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종시는 시범적으로 읍면동장을 주민총회에서 추천하고 있고, 읍면동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관치로 지칭되는 무늬만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협치의 주민자치가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해의 끝자락에 서면 언제나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지역을 위하여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말에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방자치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 주민자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좀 더 많은 권리확보를 위하여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의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도2동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도 미래를 대비하여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올해의 나의 화두를 찾는다면 당연히 묵빈대처(默賓對處)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석존(釋尊)이 살아 계셨을 때 '찬타카'라는 악성(惡性) 비구(比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모시는 마부였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내 덕분에 싯다르타 태자가 부처가 됐다"고 위세를 떨면서 부처님 제자들을 깔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듯하여 부처님 제자인 아난이 부처님이 입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바로 잡아주려고 싸우거나, 벌주거나, 고치거나, 격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대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침묵으로 대처하면 스스로 깨달아 고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독야청청(獨也靑靑)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히 있게 하지 않음을 탓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거울 때는 철들 때라고 하는데, 이순(耳順)이 되어서 또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기에 내년에도 일도2동주민자치위원 모두가 합심하고 소통하면서 일도2동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일도2동주민자치위원 여러분, 동민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 한해를 보내면서...

어느새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이제 곧 닥칠 겨울이 오면 1년 동안의 일들은 고스란히 내려놓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갈 계획을 세우겠지요. 힘들었던 일들은 흐르는 강물속에 떠내려 보내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은 내 가슴속 깊은곳에 꼭꼭 간직한 채로 새로운 행복을 찾아 다시 1년의 여정을 떠날 겁니다.



임 일 순  
일도2동주민자치위원  
기획홍보분과장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내 스스로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자율성이 없다보니 활동에 한계도 있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되돌아 본다면 주민자치 기능이나 지역발전 차원 보다는 문화, 복지 차원에 더 많이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다 질 높은 역량과 가치관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선도하는 주민자치위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주민 공동체 형성에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솔선수범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덕목과 자질을 갖춘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처음 참여할 때 갖고 있었던 좋은 생각들을 제시하고 실천해 간다면 지나간 한해가 그렇게 아쉽게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못다한 일들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변화해 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여 드립시다.

### 지면소개

1면 \_ 묵빈대처(默賓對處) · 김두경 / 한해를 보내면서 · 임일순

2면 \_ 기고\_2019 도시재생 한마당을 다녀오고 나서 · 이은진 / 대밭에 있는 쉼은 곧게 자란다 · 서홍식 / 제6회 고마로마(馬)문화축제를 되 돌아보며...! · 오영진

3면 \_ 제주의 역사·문화유적을 찾아서\_동성(東城)·돌하르방·신선길(II) · 문영택 / 고마로마(馬)축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모저모

4면 \_ 기고\_우리 동의 복지 문제에 대하여 · 강창근 / 점점 진화되고 있는 버스승차대 · 김은경 / 건강상식\_무릎 안 아프고 자전거 타는 방법 · 김동근 / 주민자치위원회 생생중계실

5면 \_ 사람과 사람들 / 들꽃·수선화 · 고재민 6면 \_ 관내학교 이모저모

7면 \_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8면 \_ 알림 / 홍보



## 2019 도시재생 한마당을 다녀오고 나서....



이은진

신산머루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는 2019 도시재생한마당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참가했다.

이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우수사례 성과공유, 정부,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홍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전국에서 16곳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신산머루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제주도에서 예선을 거치고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모든 일들이 일도2동 주민과 관계기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신산머루 도시재생 사업에 일도2동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 기고

## 대밭에 있는 썩은 골게 자란다

서흥식  
수필가

일이 아닐 수 없다.

추위에 떨어 본 사람은 태양이 따뜻함을 알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음을 겪어본 사람은 생명의 존귀함을 안다고 어느 시인은 말했다. 한국에서 초빙교수로 살다가 귀국한 미국의 유명한 교수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어떠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 교수는 "한국인은 너무나 친절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다. 권력자이거나 유명한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힘없는 약자에게는 거만하기 짝이 없어 놀랄 때가 많다. 특히 식당 종업원에게는 마구 무례하게 대하여 옆에서 보기에 불쾌할 정도이다." 잘 나가는 엘리트일수록 이와 같은 이중인격을 지니고 있어 인간적으로 사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점잖은 사람이 미국의 코리아타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야! 너! 이봐! 큰 소리 치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엘리트 계층이라면 배운 사람인데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야하는데 오히려 더 거만을 떤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롭지가 못하다. 말은 유식하지만 행동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슬픈 현상이다.

그 교수는 어느 날 모 회사 중역과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한가한 길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운전기사가 차를 멈추자 중역이 "아무 차도 없잖아 그냥 건너가."

라고 말했다. 그 후부터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다. 힘 있는 사람부터 법을 안 지키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준법정신이 엉망이지 않은가.

고위 공직자로 내정된 자가 청문회에서 대부분이 위법, 비리, 부정, 위장전입 등을 인정할 정도이니 요직에 있는 인사들도 다시 보게 된다. 한국의 엘리트들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회사에서 뭐가 잘못되면 전부 뒷사람 아랫사람 탓이고 자기반성은 조금도 없어 모두가 남의 탓이다. 자신의 죄와 복의 원인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이 삭막하고 슬픈 마음이 절로 생긴다. 교육계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인간으로서의 도리, 정직성, 책임감, 겸손, 희생정신, 준법정신 등을 몸과 마음에 배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나는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배우지 못한 한을 품고 살아왔다. 각종 시민강좌는 무엇이든 빠지지 않고 수강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좌우명을 나는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았다. 누구에게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부끄러움 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것에 열심이 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 유독 사람만 웃으며 살아간다. 좋은 생각으로 기쁨과 웃음 짓는 게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을 갖기 위한 길이라면 너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며 나 자신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마음을 열면 아름답고 우아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썩이 대밭에 있으면 대나무처럼 곧게 자란다. 단 한번 주어진 인생! 덕과 지혜의 향기가 조금씩 우러나는 부드럽고 보람 있고 멋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야지 않겠는가.

## 제6회 고마로마(馬)문화축제를 되 돌아보며...!



오영진

고마로 마(馬)문화축제 위원장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현대가 공존하는 고마로를 따라...』라는 주제로

"제6회 고마로마(馬)문화축제"가 지난 10월 18일(금)부터 19일(토) 2일간 10월 '제주 말 문화 관광의 달'을 맞아 조선시대 수천 마리의 말을 방목했던 고마장(古馬場)이 있던 고마로(古馬路)일대 및 신산공원에서 말테마 역사축제가 도민 및 관광객 등 3,000여명 이상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막을 내렸다.

축제 준비를 위해 3개월여간 고생을 함께 해주신 축제위원 및 관계자 분들께 우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되돌아 보건데 행사진행에 부족한 부분도 있어 아쉬운 마음 크다.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 보완하여 고마로마문화축제가 도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마 문화를 계승하고, 다양한 축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제주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축제기간 많은 관심을 갖고 행사장을 찾아주신 일도2동 주민 여러분들과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협찬하여 주신 분들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의 혼을 위로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마제」



고마로마(馬)문화축제 거리퍼레이드



고마로마(馬)문화축제 거리퍼레이드



## 제주의 역사 · 문화유적을 찾아서...

## 동성(東城) · 돌하르방 · 신선길(Ⅱ)

문영택  
사단법인 질토래비 이사장

## 3. 제주의 신들의 총본산인 광양당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이 들어선 이 지역 일대는 사직단, 마조단, 연무정, 향교, 성황당, 광양당 등 제주의 주요 기관들과 성소들이 자리 잡았던 성역으로 추정된다. 탐라시대부터 있었던 광양당은, 당산봉에 자리했던 차귀당과 안덕면 덕수리의 광정(廣靜)당과 함께 3대 국당(國堂)이라 전해진다. 광양당은 한라산 수호신을 모시는 당이었고, 차귀당과 광정당은 사신(蛇神)을 모시는 당이었다. 다음은 삼성혈 바로 북쪽에 위치했던 광양당을 소개하는 표지석의 내용이다.



‘한라산 호국신으로 알려진 광양당(廣壤堂) 제사터 : 전설에 의하면 고려시대 송나라 호종단(胡宗坦)이 제주의 지맥을 누르고 떠날 때 노한 한라산신이 때로 변신하여 거센

파도를 일으켜 호종단의 배를 침몰시켰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한라산 호국신을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702년(숙종 28) 이형상 목사가 이를 철폐시켰으나 뒤에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제주도를 흔히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이라 한다. 제주선인들은 달을 보고 조수의 간만을 알고, 별자리를 보고 배의 방향을 잡았으며, 하늘과 바다와 구름을 보고 바람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항해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따르므로 제주선인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었다. 제주선인들이 섬겼던 신들의 총본산은 삼성혈 주변인 광양당(廣壤堂)이었다. 1486년(성종 17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과 1653년(효종 4년) 이원진 목사가 편찬한 ‘탐라지’에는 광양당을 한라호국신사(漢拏護國神祠)로도 기록하고 있다. 1702년 이형상 목사는 송유정책의 일환으로 도내의 음사와 절간 등 130개소를 불태워 없애고 광양당도 폐쇄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교예식에 따라 제례를 행하였는데, 300년 전까지만 해도 광양당의 원형은 상당부분 보존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다음은 이원진 목사의 ‘탐라지’의 한 대목이다.

‘송나라 호종조(胡宗朝: 제주에서는 호종단 또는 고종단으로 전한다.)가 제주 땅에 와서 기운을 눌러버리고 바다를 건너 돌아가는데 신으로 변하여 매가 되어 날아올라 돛대의 맨 꼭대기에 앉았다. 순식간에 북풍이 크게 불어 호종조의 배를 격쇄하여 버리니, 비양도 바위 사이에 빠졌다. 조정에서는 그 신령스럽고 이상한 것을 포양하여 광양왕

에 봉하고 해마다 향폐(香幣)를 내려서 제사하게 하였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한편 호종단 일행이 탄 배가 수장된 곳은 비양도가 아닌 차귀도(遮歸島)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한자의 의미로 보면 비양도 보다는 차귀도의 한자의미가 위의 전설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덧붙여, 제주에 세워졌던 3개의 서원 중 하나인 삼성서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고서에 의하면, 1526년(중종 21년) 이수동 목사가 그동안 무격신앙의 성소인 광양당이 있었던 곳에 담장으로 에워싸고 흥문을 세워 후손들이 춘추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니, 비로소 삼성혈이 성역화 되었다. 이어 1698년(숙종 24년) 유한명 목사가 삼성혈 동쪽에 건립한 삼을라 묘를 1702년(숙종 28년) 이형상 목사가 가락천 동쪽에서 옮기어 후손들로 하여금 춘추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740년(영조 16년) 안경운 목사가 재생(齋生: 居齋儒生の 준말)을 두어 사와 재를 갖춘 후 삼성의 후에 중에 학문이 뛰어난 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삼성사 역시 1871년(고종 8년)에 훼손되어 삼성이 따로 위패를 봉안하다가, 1890년(고종 27년) 정언 고경준의 진정에 의하여 삼을라 묘가 복구되자 위패도 봉환되었다. 다른 지방의 서원과 달리 삼성서원은, 제주민의 시조인 삼을라를 배향한 곳으로, 이는 제주의 토착세력을 화유하여 제주지방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굴림서원에 배향된 유현이 모두 외지인임을 감안할 때, 탐라의 시조신의 배향은 제주의 자존과도 관련된 문제로 제주선인들의 바람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계속)



라인댄스 발표회



댄스스포츠 발표회



난타교실 발표회

## 고미로(馬)문화축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모저모



노래교실 발표회



오카리나 발표회



분재교실 분경 전시회



문인화교실 작품전시회



## 기고

# 우리 동의 복지 문제에 대하여...



**강 창 군**  
일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일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우리 동의 복지 문제에 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업무
3.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상과 같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복지 대상자 발굴과 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은 물론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본 법률에 의하여 공공의 힘

만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 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공단체입니다.

우리 협의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동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이러한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 우리 동의 복지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고,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로 동민의 복지체감을 높이고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민·관이 협력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매월 1회 협의체 위원과 결연 맺은 독거노인 가정에만 배달을 통하여 불편사항 등을 상담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여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어르신 무료 급식 및 경로당 재능기부 공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을 통하여 우리 동민 모두가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물어 가는 기해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생 / 생 / 중 / 계 / 실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두경)

### 일도2동, 9월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2019. 10. 10(목)에 주민자치위원회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58회 탐라문화제 참여 및 10월18일부터 19까지 개최되는 제6회 고마로마문화축제 참가 및 홍보에 대하여 의논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일도2동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자고 논의 하였다

### 제58회 탐라문화제 참가



2019. 10. 12(토)에 제58회 탐라문화제 퍼레이드에 참여하였다.

### 신산공원 빛축제 참가



2019. 10. 17(일)에 신산공원 빛축제 '제주를 빛으로 품다'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일도2동,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힐링체험) 운영



2019. 11. 12(토) 주민센터2층회의실 및 성인발달장애인 힐링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엄마+자녀) 및 성인발달장애인, 주민자치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화분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기고

# 점점 진화되고 있는 버스승차대



**김 은 정**  
일도2동 주민센터 주무관

오늘날 교통수단의 발달로 자가용의 이용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제주도에 교통체증이란 것이 거의 없었으나 자가용 이용의 증가로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제주에서도 꽉 막힌 도로를 볼 수 있다. 또한 자가용의 증가로 제주는 주차난과 대기오염등의 환경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제주시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리고자 다양한 개편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버스승차대의 개선이다. 과거에 버스정류소의 모습은 동그란 노란색 표지판 앞에서 비가림막도 없이 길거리를 서성이며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버스도착예정시간, 버스위치정보 등을 즉시 알 수 있다.

또한 비가림 시설 설치 및 버스승차대 지붕개선, 저상버스 맞춤형 승·하차 설치, 휠체어 진·출입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하는 등의 시설을 보강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질을 향상시켜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계절별 이용 불편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버스정류장 에어컨설치 확대 및 유리천정으로 햇빛이 투과되어 불편하였던

천정을 알루미늄복합 판넬로 개선하고 실시간 버스정보 음성안내 설치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온열의자 설치를 확대하여

어느 계절에나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승차대는 시대에 발 맞춰 스마트한 시스템 도입으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더 편리해진 대중교통은 자가용과 비교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자가용과 달리 주차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자가용만큼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버스정류소 승차대 사용을 위한 주민의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마시던 음료를 놓고 가는 등의 불법쓰레기 투기 및 불법 광고물 부착, 혹은 흡연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가를 찌푸리게 만든다. 버스승차대의 더 나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시민의식 함양을 기대해본다.

## 견 / 강 / 상 / 식

# 무릎 안 아프게 자전거 타는 방법

김동근/주민자치위원

자전거 타기는 가장 안전한 운동 중 하나지만, 타는 자세가 좋지 않거나 너무 오랜 시간 타는 경우 허벅지, 엉덩이, 미추에 통증과 물집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자전거를 타거나, 균등하지 못한 힘으로 페달을 돌리는 경우에는 무릎과 발목 관절에 통증이 올 수도 있다. 무릎 통증 등 하체 건강은 안장의 높이와 관련이 있다. 주로 안장 높이가 키와 맞지 않아 무릎에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기는데, 반복되면 무릎 불안정성이나 연골

연화증이 유발될 수 있다. 자전거 안장이 지나치게 높으면 허리를 꼭 숙이게 돼 허리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평소 허리 통증이 있다면 자전거로 인해 증상이 심해질 우려가 있는데 허리를 굽히는 라이딩 자세는 허리디스크 증상을 악화시킨다. 핸들 높이는 상체 피로와 관련이 있다. 스피드를 위해 핸들을 안장보다 낮게 하면 어깨와 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핸들과 안장 사이 거리는 팔꿈치를 가볍게 굽혔을 때 잡힐 정도가 적당하다.



## 사 / 람 / 과 / 사 / 람 / 들

### 일도2동통장협의회,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전개



**일도2동 통장협의회(회장 고광인)**에서는 2019. 10. 23(수) 17:00~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통장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주택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인근 가정에 배부하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등 길거리 홍보 및 클린하우스 단속에 나섰다.

### 일도2동 방위협의회 안보견학 추진



**일도2동방위협의회(회장 박경호)**는 2019. 10. 26(토) ~ 10.27(일) 2일간 여수, 순천 일원에서 안보견학을 추진하였다. 타지역 안보현장을 방문하여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올한 해 동안 방위협의회 활동을 돌아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 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버스승차대 환경정비 실시



**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문동진)**에서는 2019. 11. 13(수) 회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비가림 버스승차대 세척 및 불법광고를 정비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 고마로마축제 점심 봉사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은희)**에서는 2019. 10. 18(금)~10. 19(토) 동안 회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마로마축제에서 말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말소제비, 말육회와 같은 음식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였다.

###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실시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위원장 강찬중)**에서는 지난 10월 이틀 동안 회원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하여 청소활동은 물론, 도배와 장판 및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

### 일도2동연합청년회, 야간 방범활동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실시



**일도2동연합청년회(회장 진두선)**는 2019. 11. 14(목)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교육시설인 일도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주변에서 야간방범활동을 하였고 고마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실시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한관섭)**에서는 2019. 11. 14(목) 협의회 회원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주민센터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선정 강사를 초청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과 함께 나들이 행사 개최



**일도2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이승훈)**는 2019. 10. 04(금)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16명과 함께 나들이 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 일도2동민속보존회, 탐라문화제 축제 분위기 조성



**일도2동 민속보존회(회장 조창운)**는 제58회 탐라문화제 행사가 10.9 ~ 10.13 (5일간) "사람이 탐나, 자연이 탐나, 탐나는 제주문화"의 슬로건 아래 제주문화가장 및 제주문화가장퍼포먼스 경연 출연으로 지역주민들과 민속보존회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풍물공연을 통하여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일도2동지역자율방재단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일도2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오영진)**에서는 2019. 11. 4(수)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자율방재단 및 동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다들영 출래 멍글앙 복지사 각지대 취약가구 지원사업'에 따른 밑반찬 전달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덕연, 강창근)**에서는 2019. 10. 14.(월) 두맹이복지회관에서 '모다들영 출래 멍글앙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 지원사업'을 개최하여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밑반찬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 드꽃

사진 / 고재현  
주만지서위원



### 수선화

지중해 연안이 원산인 수선화는 남부지방에서 관상초로 심어온 귀화식물이다. 12~3월까지 피는 꽃은 주로 흰색이며 긴 꽃줄기 위에 5~6송이가 옆을 향해 달리는 다년초이다. 제주도에서 자라고 부화관이 주름진 것을 '제주수선'이라고도 한다.



# 관내 학교 이문지문

## 인화초등학교

### 학교폭력예방 친구사랑 캠페인 운영



인화초등학교(교장 김혜란)는 11월 6일(수)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제2회 하꽃길 음악회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꽃길”을 개최하였다. 인화원드오케스트라, 인화사랑합창단, 인화사랑중창단, 인화초등학교풍물부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인화교육가족 앞에서 뽐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1학기에 이어 실시된 제2회 하꽃길 음악회를 통해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재능기부의 경험을 제공하고 즐겁게 감상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 가족과 함께하는 숲길 행복나들이



인화초등학교(교장 김혜란) 10월26일(토) 오전9시부터 12시 30분까지 2019학년도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숲길 행복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총 40가족 12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한라생태숲에서 실시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가족사진도 찍으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동광초등학교

### 독도의 날 기념 독도사랑 에코백만들기



동광초등학교(교장 김지혜)에서는 10월 24일과 25일에 3-4학년 대상으로 독도의 날을 기념 독도사랑 에코백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한국청소년진흥협회 박천오대표가 각 학급을 순회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학교에 올 때 챙기고 다는 책가방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에코백만들기를 실시하였다. 한편, 독도사랑 에코백에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 독도야 고마워,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문구가 새겨져서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스스로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독도의 날에 되새겨보는 활동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고 소중한 우리 땅 독도를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 동광초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사' 만장굴, 동백동산 탐방



동광초등학교(교장 김지혜)에서는 10월 9일(수)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사'에는 28가족의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교원 등 총 91명이 참석하여 만장굴과 동백동산을 탐방하였다. 박물관 소속 해설사님께서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 탐방 시 용암동굴의 형성 과정과 꽃지왕 동백동산 습지 탐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으로 학부모님들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알게 된 뜻 깊은 하루였다고 말씀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은 가족간에 그동안 못 나눈 대화도 나누면서 가족들과 사진 촬영하며 가정마다 행복 가득! 웃음이 넘쳐났다

## 일도초등학교

### 1학년 수업컨설팅 실시



일도초등학교(교장 고종희)는 2019년 10월 10일(목) 2교시에 1학년 2반 교실에서 제주교육지원청 컨설팅 담당 고희영 장학사, 차지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장학사가 참여한 가운데 1학년 교사의 수학과 수업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번 수업컨설팅은 수업교사와 컨설턴트가 수업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 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수업활동에 적용하였으며, 수업공개 후에는 수업 실행에 대한 성찰 및 정보교환에 대한 사후협의를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수업교사는 “수업컨설팅을 통해 수업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인 수업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교실수업 개선 및 수업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일도초병설, 찾아가는 문화체험(공연 관람) 실시



일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고종희)은 2019년 10월 16일(수) 9시 45분에 일도초등학교 도서관에서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 공연의 내용은 숲 속 마을에 사는 호랑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친구를 놀리며 폭력을 휘두르자 친구들이 호랑이를 혼내줄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른 약한 친구에게 함부로 힘자랑을 하거나 친구의 흉내를 내며 약 올리는 것이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마무리하였다. 이번 활동은 친구의 소중함과 다른 약한 친구를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연을 관람하며 지켜야할 태도와 공연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li> <li>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li> </ul>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1.16.~ 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li> <li>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li> <li>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li> </ul>
레저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달 10일까지</li>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li> </ul>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달 말일까지</li> <li>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 시 수시부과</li> </ul>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li> <li>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li> </ul>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 등 분: 보통징수(납기 8.16.~ 8.31.)</li> <li>재 산 분: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 7.31)</li> <li>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ul>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소득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li> <li>양도·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li> <li>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ul>
재산세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16~31):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li> <li>- 9월(16~30):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li> </ul> </li> <li>※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li> <li>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li> </ul>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분: 제1기분(6.16.~ 6.30.) / 제2기분(12.16.~12.31.)</li> <li>수시분: 소유권 이전시 일할계산 부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li> <li>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분할납부(3,6,9,12월)</li> </ul>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자원분(조례): 말일까지 납부:</li> <li>특정부동산분(조례): 매년 7월(16~31), 9월(16~30)</li>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li> </ul>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li> <li>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li> </ul>

## 내 캐리어 속 짐들을 확인하세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입 제한 품목**  
(금지 및 제한품목)

<b>우유</b>	<b>치즈</b>	<b>버터</b>
<b>예민동물 사료</b> <small>인간을 해할 염려가 있음</small>	<b>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b>	<b>통조림</b>

**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물 통해 들어오면 큰일나요!**

**② 해외에서 구매한 과일·채소는 반입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00,000  
과태료 부과

허위·변조신고 또는 신고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

1층 9102  
3000호

2층 9101  
2000호

3층 9103  
3000호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도

“작은 편의보다는  
기초질서를 지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

기본

기본은 모든 사람의  
기초와 근본을  
말합니다.

쓰레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자원입니다.

올바른 주·정차는 이웃 간의 배려입니다.

도로는 사유지가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



주변 주차장 이용,  
길에서 이동하기  
인도·화단·보도 위  
주차 금지



상가 내 집 앞 도로 위  
물건 적치 금지

## 정착주민 지원제도 홍보



### 정착주민지원 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4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조 전면 개정 : 2017.7.20

- 정착주민 관련 용어 정의
- 정착주민 등 지원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정착지원위원회 설치
- 정착지원센터 운영 등

- 정착주민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 정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부서별	지원내용
자치행정과	제주정착주민 지원업무 총괄
친환경농업정책과	귀촌·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원	귀농인 교육에 관한 사항

### 정착주민 지원센터 안내

- 정착주민 지원 센터 운영 : 46개소(도, 행정시, 읍·면·동)
- 행정기관 내 정착주민 상담 등 전담 창구 운영 → 이주정보 제공, 생활불편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지역소통, 교육 지원 등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지원

- 목적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등 지역 융합·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및 지역 활력화를 도모
- 지원대상 정착주민 지원관련 활동단체, 법인 등(공모 선정)
- 지원기준 해당연도 예산범위내 사업 공모기준에 따른
- 사업내용 정착주민, 지역주민 참여 마을 발전사업, 지역교류 활성화 사업 등 지역 문화 교류, 제주바로일기, 정착주민재능기부, 이주민응용사업, 지역과의 소통·홍보사업

### 제주정착 정보 제공

- 목적 이주 희망자 및 정착주민들이 제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 주요콘텐츠 제주생활질서 : 제주도 소개, 생활민원안내, 육아와 보육 등 정착지원사업 : 귀농귀촌 지원사업, 정착주민 제도 운영 등
- 제주 정착정보 사이트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접속 ▶ 제주소개 ▶ 제주정착정보 (<http://www.jeju.go.kr>)



## 2019년 7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확대 시행 안내

차고지증명 제도란? 자가용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차고지증명제가 현재 제주도 동지역에 한해 중·대형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중·대형 전가차 포함) 시행합니다. (단,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대상차종	중 형	차 량 분 류 기 준	대 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소형제한 초과		배기량 2,000cc 이상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제한 초과 길이 9m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m 이상
와상자동차	최대길이 10m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제1종저공해자동차	2019. 7. 1일부터 중·대형 전가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대용량자동차 등		

단, 소형제한 차종 길이 4.7m 이하 배기량 1.7m 이하 2.0m 이하 차나라도 초과한 경우 승용자동차임

③ 신청절차

구분	신청·접수	차고지현장확인	증명서 발급
연령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계정	읍면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④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및 차종별 예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고지증명 차종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 자동차 (대형 2007년 5월 1일, 중형 2017년 1월 1일 이전)</li> <li>2019년 7월 1일 현재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li> <li>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li> <li>중소사업장 등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특수 목적 차량(예: 소방차, 경찰차 등)</li> <li>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 명의로 된 상용용 자동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차 : 코르세라, XC60, 그랜저, 제네시스, 제닉스, 제이콘 등</li> <li>중형차 : 아반떼, 쉼비트, XC3, 코르세라, 아이오닉EV, 혼데 EV 등</li> <li>미입력된 경우 :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 제1종 저공해자동차</li> <li>제1종 저공해자동차 : 제1종 저공해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li> </ul>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도 차량관리과(☎728-3232~32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노상 적치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상가 또는 집 앞 도로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도로

중점  
정비  
사항

- 도로나 보도 위 물건 진열행위, 도로변 좌판 진열행위
- 도로변 물통·화분·패타이어, 각종 잡채물 적치행위
- 통행불편 장애요인 및 미관저해 요소



단속  
관련  
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정용 허가)  
- 도로를 정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에 토석, 임목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정서를 만들기 위해  
제주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청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